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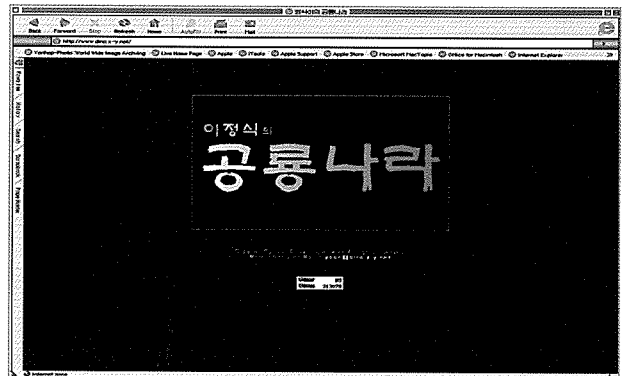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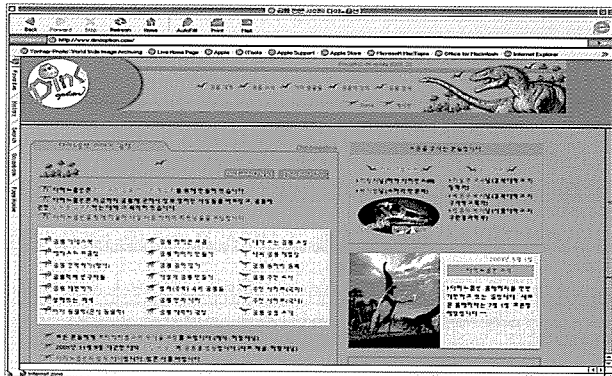
수백마리 공룡이 뛰어난다

어릴 적 과학과 접한 가장 첫 매개체는 바로 공룡이 아니었을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몸집과 기괴한 모습은 어린 마음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했다. 지금도 아동 관련 과학서적 중 공룡을 주제로 한 책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공룡의 매력은 여전한 것 같다.

공룡의 인기는 인터넷에서도 금방 확인된다. 공룡이란 두 글자를 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자마자 수많은 공룡 사이트들이 떠오른다. 공룡과 관련된 사이트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전문성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공룡과 관련된 세세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신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알차다. 어릴 적 호기심으로 공룡에 매료된 사람들이 매니아로 성장, 이런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원이 고블리사우루스, 윈드라사우루스 등의 가상 공룡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가상 공룡에 학명, 몸길이, 몸무게, 식성, 보행, 생존시기, 속력, 발견지 등 실제 공룡에 못지않은 배경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러스트를 통해 그럴사한 외형까지 갖추어 놓았다.

이정식의 공룡나라(dino.x-y.net) 역시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공룡에 관한 다양한 상식과 함께 자료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 토론방이 활성화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룡에 관해 궁금한게 있다면 이곳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하다. 이곳 회원들의 자세한 답변이 기다리고 있다. 회원들이 직접 그래픽으로 그린 공룡그림으로 꾸민 갤러리도 재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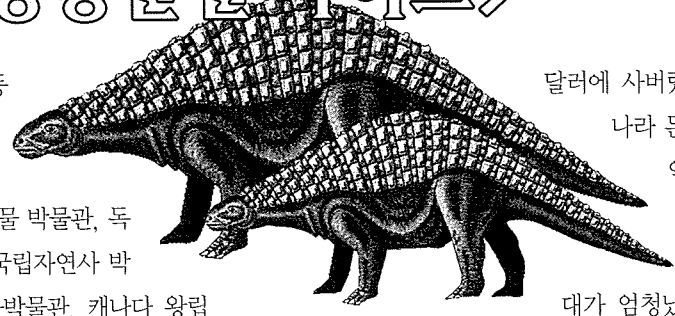


국내 사이트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다이노옵션(www.dinooption.com)이란 사이트. 공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다음 카페 회원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공룡학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 추천 도서, 국내외 링크 사이트들을 알차게 모아놓았다. 이 사이트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특히 가상의 공룡 만들기란 메뉴다. 워낙 공룡에 관한 전문지식이 많은 회원들을 위한 특별한 코너라 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동원해 새로운 가상의 공룡을 만들어내는 코너로 현재 10여 명의 회

개인홈페이지가 아닌 곳으로는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가 운영하는 사이트(www.dinorc.co.kr)가 불만하다. 한국공룡연구센터는 특히 지난해말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에서 익룡 발자국 화석을 발견, 이를 '해남이크누스 우항리엔시스'라는 새로운 학명으로 등재되도록 하는 등 국내 공룡연구기관으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이 사이트는 국내 공룡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특히 고성, 보성, 여수, 화순, 해남 등 국내 주요 화석지의 자세한 설명 및 사진 자료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고성 화석지의 공룡발자국

<공룡관련 사이트>

은 신기하기 만하다. 익룡의 비행이론 등 공룡 이론에 관한 간단한 소개도 곁들이고 있다. 이와함께 네덜란드 국립 자연사박물관, 독일 슈투트가르트 고생물 박물관, 독일 쾰렌베르크 자연사박물관, 프랑스 국립자연사 박물관, 영국 자연사박물관, 미국 자연사박물관, 캐나다 왕립 티렐 공룡박물관, 중국 지공 공룡박물관, 일본 미포 공룡박물관 등 해외 유명 공룡박물관 관련 사이트를 링크하고 있어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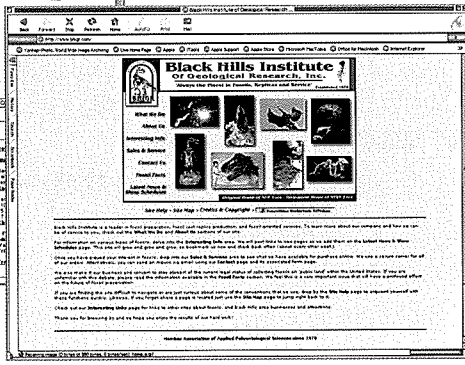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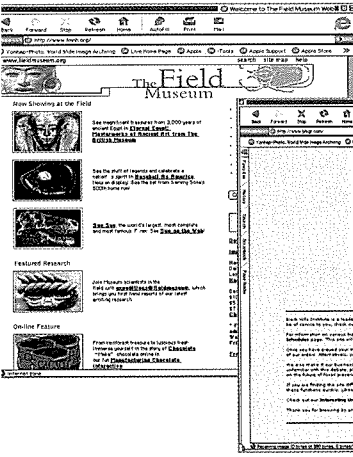
달리에 사버렸다고 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약 100억원 정도. 당시 힐시티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났지만 시카고필드의 물량공세를 당해내지는 못했나보다. 그래서인지 시카고필드 자연사박물관은 Sue에 관한 좀더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다.

해외 사이트 중에는 특히 일러스트 등 다양한 공룡 이미지로 이루어진 사이트들이 많다. 그것도 공룡에 관심이 많은 화가나 일러스트들이 직접 작업한 작품을 사이트에 올린 경우가 많아 그 수준이 만만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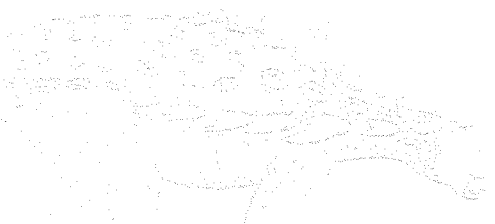
일본인 화가 시라이시가 운영하는 쥐라기 갤러리(www.005.upp.so-net.jp/JurassicGallery)는 대표적인 곳. 시라이시 자신이 직접 그린 공룡 그림들이 100개 이상 올라와 있다.

공룡아트갤러리(dinosaur.umbc.edu/artists)도 비슷한 사이트로 69명의 화가들이 그린 724점의 공룡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티모시 마이클 키시란 사람이 운영하는 사이트(dino.lm.com)도 자신이 직접 그린 공룡 그림과 함께 여러 작가들이 그린 그림을 집대성해 놓아 볼 만하다. 



해외 사이트로는 블랙힐스연구소(www.bhigr.com)와 시카고필드 자연사박물관(www.fmnh.org) 사이트가 공룡에 관한 충실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의 힐시티에 위치한 블랙힐스 공룡연구소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공룡 화석 복제품도 판매하고 있다. 여기서 블랙힐스연구소와 시카고필드 자연사박물관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 한가지. 다이노몹션이 소개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블랙힐스연구소는 Sue와 Stan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을 발견한 곳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Sue라는 화석의 경우 이 연구소에서 발굴해놓고 나니 시카고 필드 자연사박물관에서 800만



| 글 | 김진진 전자신문 기자 jjin@etnews.co.kr |